2012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사회계열) 입학시험 문제

지원전형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좌석번호	

※ 아래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도 그리스인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에는 이미 일찍부터 신앙과 희망이라는 단 하나의 처방으로 치유될 수 없는 다양한 고통을 지닌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엠페도클레스 그리고 이들보다 훨씬 이전의 오르페우스교의 열광자들이 새로운 종교를 세우고자 했다. 앞의 두 사람은 진정으로 종교 창시자의 영혼과 재능을 지니고 있어, 이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그저 종파들을 만들어 내는 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한 민족 전체의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종파들만이 머리를 들면, 언제나 우리는 그 민족이 이미 자체 내에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거친 무리 본능이나 윤리적 관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동요 상태를 사람들은 흔히 윤리의 타락이나 부패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알이 성숙하여 껍질이 깨질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북유럽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북유럽이 남유럽에 비해 뒤처져 있었으며, 상당 부분 같은 유형과 같은 색깔의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의 새로운 사상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작용하면, 이는 그 영향을 받는 대중들이 그만큼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은, 만족되고 관철되어야 할 반대의 요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거꾸로 힘과 지배욕이 매우 강한 천성을 지닌 인물이 단지 종파에 국한된 미약한 결과를 낳는 데 그치는 경우, 이로부터 그 문화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이는 예술과 인식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시문 (나)

예술에서는 발전 대신에 항상 독창이란 것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다. 독창이란 것은 자기 완결적인 것을 의미한다. 각개의 예술의 세계는 제각기 독립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서 혼자서 완결되는 세계다. 그러면 고전과 고전과의 사이에 절단을 이어가는 것, 즉 예술의 역사의 비연속의 연속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걸작 아닌 것, 즉 범작이나 졸작의 문제로 다시 한 번 돌아갈 필요에 직면한다. 예술사에 있어서 걸작 아닌 것은 예술적인 전승의 수단이 된다. 예술에 있어서 전승은 걸작 아닌 것을 통하여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아류(亞流)라는 현상에서 들 수 있다. 아류란 걸작의 모방이다. 모방은 흔히 걸작을 모독하고 그것을 개악(改惡)한다. 그러면 아류란 걸작의 파괴지 그 전승이 되느냐고 할지 모르나, 전승이란 이러한 모독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람은 아류에 전승된 걸작에 대하여 분명히 그 모독을 책(責)한다. 그러나 아류에 대한 이 비난 속에는 걸작에 작(作)한 존경이 숨어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상하게도 모독을 통하여 그것의 존경에 도달하는 것은 종교에서 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사람은 배신자가 신을 모독했다고 신을 경멸하지는 않는 것을 잘 안다. 모독을 죄악이라고 느끼는 심리 속에는 항상 신에 대한 신성한 숭앙이 들어있는 법이다. 이 숭앙에 의하여 종교에서 사람들이 다시 신에게로 일보 접근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역시 걸작에로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아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걸작에로 인도하는 것이다. 즉 걸작 아닌 것은 걸작과 걸작과를 매개한 것이다.

제시문 (다)

사람이 어떤 주제에 관해 명상할 때, 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다시 지우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그는 마침내 문제의 해결책을 붙잡게 된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는 희미한 빛에서 환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오래된 호기심이 막연하게 예감하고 있던 어떤 거대한 개념을 한 사회가 정교하게 만들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과학이 그러한 호기심, 예컨대 세계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기 이전에 말이다. 아니면 한 사회가 야심적으로 꿈꿔온 거대한 정복을 구현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회 내의 인간 활동이 그 야망, 예컨대 증기를 이용한 생산기계, 운송수단, 항해수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이전에 말이다. 우선 사람들에게 제기된 문제가 온갖 모순적인 창안과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가 또 금방 사라진다. 그러다가 어떤 명료한 해석틀이나 편리한 기계가 등장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잊게 만든다. 이후로는 그것이 고정적인 기반으로 이용되면서 그 위에서 궁극적인 발전과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진보는 일종의 집단적인 성찰이다. 거기에는 하나의 고유한 뇌가 없다.

(뒷장에 계속)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그것은 오히려 창안자들의 무수한 뇌 사이에서 모방 덕분에 생겨나는 연대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발견은 문자로 고정되어 거리나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전달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억의 바탕을 구성하는 이미지들이 개인의 뇌 속에서 고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진보는 개인적 진보와 같이 두 가지 절차, 즉 대체와 축적을 통해 일어난다. 발견이나 창안 가운데 어떤 것들은 대체 가능하고, 또 어떤 것들은 축적 가능하다. 그로부터 논리적인 투쟁과 논리적인 결합이 생겨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채택하고자 하며, 그것으로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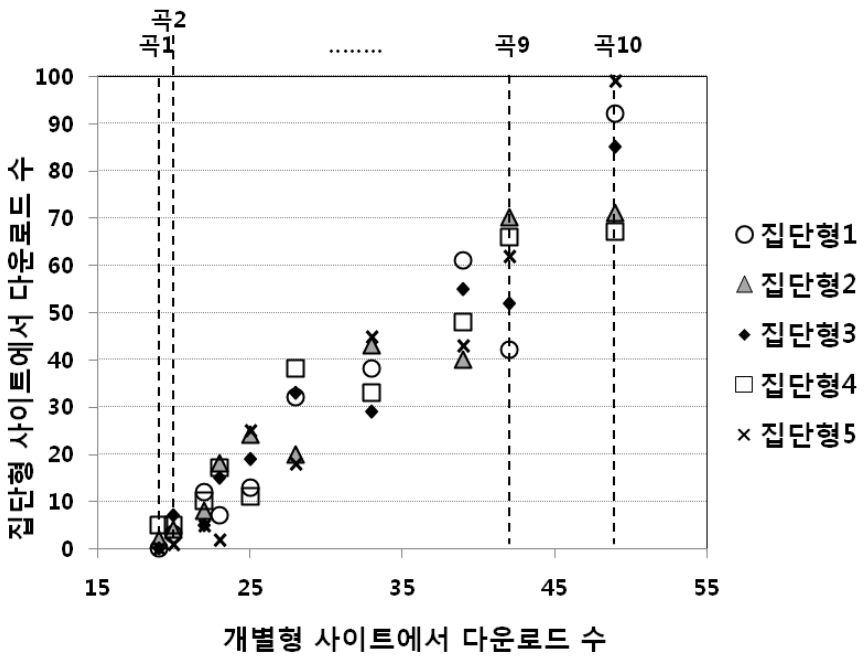
제시문 (라)

대중음악계에 새롭게 떠오르는 장르가 있다. 이 장르의 미공개 신곡(新曲)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실험을 마련했다. 일반인 신청자들 가운데 모두 6백명의 실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신곡 10개를 듣고 자신이 선호하는 곡을 3개까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6개의 온라인 사이트에 무작위로 1백 명씩 배치되었다. 사이트는 크게 '개별형'과 '집단형'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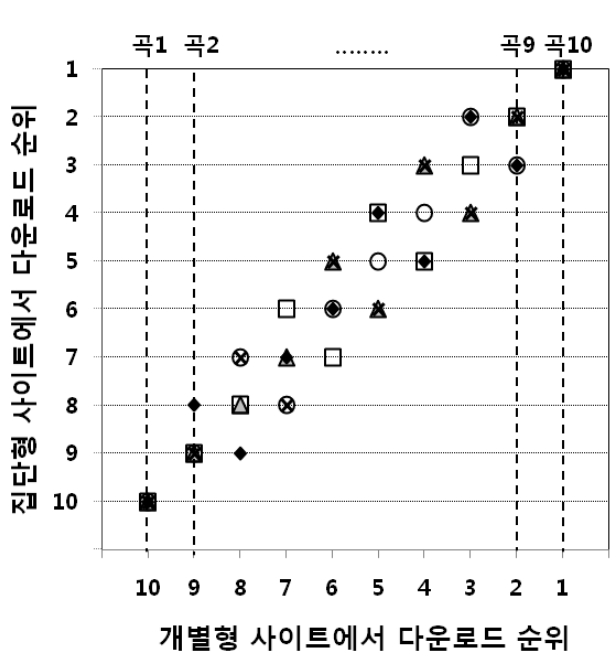
사이트 유형	사이트 수	특징
개별형	1개	- 무작위로 화면에 배열된 10개 곡을 들은 후 3개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음 -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들의 다운로드 횟수를 알 수 없음
집단형	5개	- 무작위로 화면에 배열된 10개 곡을 들은 후 3개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음 - 화면에 배열된 각 곡의 옆에는 사이트 내 다른 참여자들이 그 시점까지 다운로드한 횟수가 표시됨 - 참여자는 자기 사이트 내에서 각 곡에 대해 간단한 평을 달거나 다른 참여자들의 평을 읽을 수 있음

두 유형의 사이트 모두에서 곡을 들을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으며, 6개 사이트들 간의 의사소통은 차단하였다. 실험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그림1>, <그림2>와 같다. 집단형 사이트가 모두 5개 있으므로, 개별형 사이트에 해당하는 가로축의 한 값에 대해 5개의 집단형 사이트의 값들이 세로축으로 늘어서게 된다.

<그림1>



<그림2>



<그림1>을 보면, 개별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곡일수록 5개 점들 간 간격이 더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곡10의 경우, 개별형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 횟수가 49회였는데, 집단형5 사이트에서는 99회, 집단형2 사이트에서는 71회 등을 기록했다. 반면 개별형에서 19회를 기록한 곡1의 경우, 집단형 사이트들에서의 다운로드 횟수는 모두 10회 미만이었다. 한편 <그림2>를 보면, 개별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순위가 중위권일 때보다 최상위와 최하위일 때 5개 점들이 서로 더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곡1이나 곡10의 ■는 5개 점들이 한 곳에 겹쳐있음을 나타낸다.

〈문제 1〉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개별형 사이트에서 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곡을 다운로드한 횟수가 미공개 신곡들의 질을 반영한다는 가정 아래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